



R&D 전담부처도 외면해 온 이공계

4대 R&D 부처 고위공무원, 이공계 비율은 평균에도 못미쳐
R&D 예산은 80%까지, 이공계 인력은 15%만

□ 민병주 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)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'2009~2012 부처별 이공계 고위공무원 현황'에 따르면,

- 2012년 기준, 39개 정부 기관의 고위공무원 895명 중 이공계 출신은 227명 (25.4%)으로 평균 4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.
-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이공계 출신 공직자 우대 기조에도 불구하고, 2009년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은 27.1%인 반면 2012년에는 25.4%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.

* <표1. 정부 기관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 현황 > 참조

<표1. 정부 기관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 현황>

(단위 : 명)

| 연도 | 고위공무원 전체 |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| 비율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2009 | 842 | 228 | 27.1% |
| 2010 | 846 | 218 | 25.8% |
| 2011 | 862 | 213 | 24.7% |
| 2012 | 895 | 227 | 25.4% |

* 2012년 말 기준

* 조사 대상 기관 : 경찰청, 고용노동부, 공정거래위, 관세청, 교육과학부, 국가보훈처, 국가인권위, 국무총리실, 국민권익위, 국방부, 국세청, 국토해양부, 금융위원회, 기상청, 기획재정부, 농림수산부, 농촌진흥청, 문화재청, 문화부, 방송통신위, 방위사업청, 법무부, 법제처, 병무청, 보건복지부, 산림청, 소방방재청, 식약청, 여성가족부, 조달청, 중소기업청, 지식경제부, 통계청, 통일부, 특허청, 해양경찰청, 행정안전부, 행복청, 환경부 (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) 이상 39개 기관

○ 2012년 각 부처별 R&D 예산 배정액을 보면, 상위 4개 부처(교육과학기술부, 지식경제부, 방위사업청, 중소기업청)가 국가 R&D 예산(16조 244억원)의 약 80%를 맡아 운용하고 있으나 전 부처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 227명 중 15.4% 수준만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음.

- 해당 R&D 전담부처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은 총 35명(해당 부처 내 비중 23.3%, 각 부처 평균은 25.4%)으로 나타났다.

* <표2. 2012 R&D 예산 배정 상위 4개 부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 현황 > 참조

<표2. 2012 R&D 예산 배정 상위 4개 부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 현황>

(단위 : 억원/명)

| 기관명 | 2012 예산 | 국가 R&D 예산 대비 비중 |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 (A) | 부처 내 고위공무원 대비 비중 | 전 부처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 대비 비중 (A/B)(%)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과학기술부 | 49,753 | 31.0% | 17 | 23.6% | 7.5% |
| 지식경제부 | 47,448 | 29.6% | 13 | 23.2% | 5.7% |
| 방위사업청 | 23,210 | 14.5% | 2 | 25.0% | 0.9% |
| 중소기업청 | 7,150 | 4.5% | 3 | 21.4% | 1.3% |
| 합 계 | 127,561 | 79.6% | 35 | 23.3% | 15.4% |

* 2012년 말 기준

* 2012년 국가 R&D 예산 : 약 16조 244억

* 2012년 전 부처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(B) : 227명

○ 이는 2013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명 중 3명을 이공계 출신으로 구성하겠다는 2009년 8월 발표된 “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 계획안”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.

○ 반 면, 과학기술 전담부서 역할을 포함하여 2013년 첫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고위공무원 25명 중 12명(48%)이 이공계 출신이며 전체 792명의 공무원 중 444명(56.1%)이 이공계 출신으로 구성되었음.

- 2013년 첫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(안)을 보면 2014년 정부 총 R&D 예산 17조 5496억원 중 6조 153억원(34.3%)으로 결정됨.

* <표3.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직급별 이공계 출신 현황> 참조

<표3.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직급별 이공계 출신 현황>

(단위 : 명)

| 구분 | 전체 | 이공계 | 비중 | 구분 | 전체 | 이공계 | 비중 |
|-------|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정무직 | 3 | 3 | 100% | 4급 | 118 | 60 | 50.8% |
| 고위공무원 | 25 | 12 | 48% | 5급 | 287 | 171 | 59.6% |
| 3급 | 21 | 13 | 61.9% | 6급 이하 | 338 | 185 | 54.7% |
| | | | | 합 계 | 792 | 444 | 56.1% |

* 2013년 10월 1일 기준

- 민병주 의원은 “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기반을 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주요 R&D 담당부처들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중이 적을 경우 현장과 동상이몽(同床異夢)인 정책을 펼칠 우려가 있다.” 고 지적하며,
- “과거 과학기술부에서 4급 이상 이공계 출신 공무원 비중이 60%를 상회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과학기술 전담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” 고 강조함.
 - 이어서, “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전반을 대상으로 이공계 인재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될 때 비로소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방안을 논할 수 있을 것” 이라고 주장함.